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빠르게 집행”

이재명 대통령 광주 타운홀 미팅 하루 만에...대통령실 90여명 참석
광주시·전남도·무안군도 후속 조치 돌입...공군항 이전 기대감 커져

대통령실이 2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광주를 방문해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며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공항이전 직접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군도 후속 조치에 돌입,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통령이 진행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의 1부에서 논의된 광주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 구성안이 이날 오후 강홍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TF는 국도비서관실이 간사를 맡고 국방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관들 외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까지 모두 9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건 광주 공공화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실 TF에서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의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 TF에서도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대대통령실 TF에서는 공공화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피해 분석 등 군공항 이전 방
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도군 공항 이전을 위해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직 6차 TF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참석을 요구하면 바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지난 24일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범 정책실장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산하에 TF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군 공항 이전 TF를 구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심은 광주시에겐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
향 대통령실 TF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
사는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
부의 철학과 강한 추진력이 느껴진다”며 “전남도는
6차 TF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
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민선8기 3
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얘기를 전했다.

무안군도 광주시,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차원의 TF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주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는 데 노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TF의 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25일 이재
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이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를 담당
해바쁘다"고 선을 그어,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가
TF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는 타이밍…추경,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투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며, 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하다. 새 성장동력 기회와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민생에 여야 없고, 실용정신 입각해 경제 성장에 최선 다하며 변칙·편법 아닌 투명한 재정 정책 펼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 끝내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
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날 광주를 찾아 강조했던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

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 국민의 지지와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제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민생회복 주력...전남, 경제성장 최선

시장·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민선 8기 3년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각각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1년 동안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3면>

강 시장은 이날 사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한 마디로 위기 극복과 혁신의 시간이었지만, 시민들 덕분에 위기의 고개를 하나씩 넘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상의 변화를 위해 교통체계 변화와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체계 개편을 약속하고 복합쇼핑몰 착공과 후속 교통 대책, 광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AI 2단계 사

업 추진,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광주 통합돌봄 확대와 돌봄통합지원법 정착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 철학과 국정방향에 발맞춘 9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펼칠 5년 간의 골든타임 동안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9대 과제 중 서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나 민생이 최우선이다”며 “새 정부의 추경이 민생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he infographic features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stylized illustrations of a city skyline, a train, trees, a bus, a car, and a bridge. It includes three circular gauges representing different project categories.

Category	Project Name	Amount (Billion Won)	Number of Projects
Roads	호남-경전선 연결선, 서해안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등	36.4	8
Railways	영암~광주초고속, 고흥~광주, 여수~순천 등	12.4	5
Bridges	고흥~완도 연도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3	20